

휴경지를 활용한 나비원 조성계획

-월악산 골피마을을 중심으로-

A Plan of Butterfly Park on the Fallow Farm Land
-with a Special Reference to Golmye Village in Mt. Worak National Park-

심우경* · 이광우**

고려대학교 원예과학과 조경학연구실 교수*

고려대학교 원예과학과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Woo-Kyung Sim* · Kwang-Woo Lee**

Pro., Dr., Director of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Korea University*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I. 서론

우리의 농촌현실을 보면 産業化로 인하여 도시로 유출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老齡化가 가속되고 있으며 도시인들의 무분별한 농지의 취득으로 말미암아 많은 면적의 농지가 休耕地 또는 廢耕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지구상에서는 이미 대규모의 멸종이 시작되고 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나 현재 명명되어진 생물은 140만종에서부터 1억종이 넘을 것이라는 학자도 있다. 윌슨(E. O. Wilson, 1992)은 매년 사라지는 종이 2만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96년 환경부 자료를 보면 멸종된 종이 6종, 멸종위기종이 43종, 희귀종이 110종, 감소추세종이 20종으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금 국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생물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멸종동식물 협약(CITES)”,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 등이 체결되었고 우리 나라도 이러한 협약에 가입하여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농촌환경도 集約農業으로 인하여 생물서식환경이 교란되고 악화되는 현실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이 수립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농촌지역에 버려진 휴·폐경지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 회복과 농촌환경을 복원시킴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농촌환경 복원과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생물다양성 제고에 일조를 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가지 방법으로 농촌지역의 휴·폐경지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생물다양성 회복도 꾀하며, 농촌경제에도 일조를 하고자 그 지역에서 대표되는 종을 선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1. 사례지역의 선정

가. 사례지역의 전제조건

본 연구는 사례지의 생물다양성 회복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곳을 이용하여 대 국민 홍보와 자연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례지 선정에 선진국의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토지의 수용이 쉬운 지역 : 조성된 생태공원이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수용이 용이하고 법에 의해 토지전용이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 국립공원, 그린벨트, 국유림 등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휴·폐경지가 넓은 지역 : 생물다양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일수록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폐경지가 넓으면 유리하다.

○ 농업생산성이 취약한 지역 : 생물다양성 환경을 창출하는 생태원이 식량자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며, 식량위기사 다시 농지로의 환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배후지(wildlife reservoir)가 있는 지역 : 큰 산과 큰 습지 등 배후에 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어 생물의 이동이 쉬운 지역이 유리하다.

○ 생물서식환경이 양호한 지역 : 기존에 생물종 다양성이 양호한 지역이 다양성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

○ 물을 끼고있는 지역 : 호수나 습지 또는 강을 끼고있거나 근처에 위치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확보에 유리한 조건이다.

○ 연계성이 확보되는 곳 : 인접지역에 인문 자연적인 관광 요소가 풍부하여 그들과 연계성이 좋은 곳이 유리한 지역이다.

○ 접근성이 좋은 곳 : 대도시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이용측면에서 유리하다.

나. 사례지역의 선정

상기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적합한 사례지역을 선정한 결과 다음지역을 선정 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은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30여호의 火田民이 화전을 일구고 살아오던 곳으로 지금은 농사가 경제성이 맞지 않고 이농현상으로 4가구만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휴·폐경지화 되었으며,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위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며 개울이 대상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으며 교동도 접근성이 양호한 것이 생태원을 조성하는데 적합한 지역이라 사료된다.

2. 사례지역의 기본구상

본 지역에는 한수초등학교 동산분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廢校가 되어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방문객 센터를 조성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10여만 평의 휴·폐경지를 활용하여 나비의 서식처를 조성하고 배후에 있는 산림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연관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주며, 중심을 흐르고 있는 하천을 보강하여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과 이동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이곳은 다양한 나비류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는 나비를 대표종으로 선정하여 조성하는 안을 계획의 방향으로 정한다.

폐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형태의 나비를 관찰할수 있게 산지형 나비biodote, 초지형 나비biodote 그리고 하천형 나비biodote으로 나누어 배치하였고, 다양한 나비들은 독특한 식이식물을 가지고 있으며, 월악산 내에 더욱 다양한 나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식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것이라 사료된다.

III. 결론

근대이후 본격화된 산업화와 이에 따른 都市化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의 황폐화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지의 증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때 이 휴·폐경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ecological park)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山地形 농촌인 월악산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나비를 대표종으로 다양한 생물서식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민이 참여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생물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